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수리조선업 발상지의 도시조직 분석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깡깡이마을’ 사례 -

Urban Fabric Analysis of the Ship Repair Industry's Birthplace - A Case Study of 'Kangkangi Village' Daepyeong-dong, Yeongdo, Busan -

○최 현 호* 신 건 수**
Choi, Hyeon-Ho Shin, Geon-Soo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urban fabric of “Kangkangi Village” in Daepyeong-dong, Yeongdo, Busan, recognized as the birthplace of Korea’s modern ship repair industry. It examines the formation of a distinctive spatial structure where industry and housing coexisted, and explores spatial changes and community decline following the downturn of the ship repair industr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weakening of the industrial base and population decline have led to the fragmentation of the urban fabric,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strategies in industri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rban regeneration planning.

키워드 : 수리조선업, 도시조직, 영도, 깡깡이마을, 탈산업화

Keywords : Ship Repair Industry, Urban Fabric, Yeongdo, Kangkangi Village, Deindustria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리조선업(Ship Repair Industry)은 선박의 유지·보수를 위해 선체 보강, 기계 장치 정비, 도장, 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해양 운송과 항만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조선업이 신조선 건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수리조선업은 기존 선박의 수명 연장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리조선업은 항만 배후지에 대규모 조선소, 부두, 공작장 등의 기반시설을 요구하며, 그 주변에는 작업자와 노동자의 주거지가 밀집하여 산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혼재된 집적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수리조선업은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항만 인접 도시의 도시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부산 영도구 대평동이다. 이곳은 한국 근대 수리조선업의 발상지로, 오늘날에는 ‘깡깡이 마을’이라 불린다. ‘깡깡이’라는 이름은 선체의 리벳을 두들길 때 울려 퍼지던 망치 소리에서 비롯되었다. 대평동은 조선소와 부두, 선박 수리공장이 밀집하고 그 배후에 노동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산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긴밀히 결합된 독특한

도시조직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수리조선업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그 결과 마을은 인구 감소, 공간 파편화, 생활 기반의 약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 ‘깡깡이마을’의 도시조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리조선업 발상지로서 마을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를 규명하고, 산업 쇠퇴 이후 나타난 도시조직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며, 그 결과가 지역 정체성과 도시재생 전략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이 남긴 공간적 흔적을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보지 않고,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 깡깡이마을 일대이며, 그림 1과 같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답사, 도시조직 분석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수리조선업의 역사적 배경과 도시조직 형성 과정을 검토한 후, 현장답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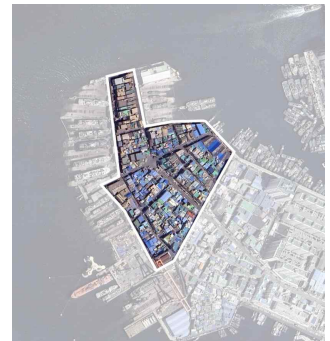


그림 1 부산영구 대평동 대상지

* 경남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사과정

** 경남대 건축학부 부교수, 건축역사이론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Kyungnam University, ttanc@kyungnam.ac.kr)

통해 골목길 네트워크, 가옥 형태, 공간 분포 등을 직접 조사하여 공간적 특성을 기록한다. 다음으로 도시조직 분석을 활용하여 도로망 구조, 필지 패턴, 주거지와 산업시설의 배치 특성을 도면화하고, 산업 쇠퇴 이후 변화 양상을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은 산업 쇠퇴로 인한 도시조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특히 수변 지역의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도시조직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2.1 영도 대평동의 역사적 배경

영도구 대평동은 부산항의 개항과 더불어 근대 수리조선업이 태동한 지역으로, 1876년 개항 이후 항만의 배후지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부산항은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고, 선박 정박과 수리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대평동 일대를 근대 조선산업의 배후단지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들어 대평동은 여러 차례 매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도시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겪었다. 영도구는 부산항의 관문 지역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지녔으나, 당시 내륙과는 단절된 섬의 형태였기에 안정적이고 넓은 산업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1910년 이후 단계적인 매립계획이 추진되면서 육상교통이 가능해졌고, 도선 항로 개설로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정착 인구가 늘어났다.



그림 2 대평동 일대 매립과정

1916년부터 1926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된 1차 대평포 매축공사는 약 4만여 평의 대규모 부지를 조성한 사업이었다. 이 매립으로 일본인 어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일본 어촌이 형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생필품 제조공장, 유흥시설, 상업기능이 발달하였다. 중심가로는 정비되면서 주변으로 적산가옥이 분포하였고, 일본인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리드형 가로망과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후반에는 해안을 따라 일본인 경영의 조선소가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제염소와 석유회사 같은 근대 산업시설도 함께 들어서 대평동을 본격적인 산업지대로 성장시켰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는 2차 매축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영도다리 건설과 직결되었다. 영도다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도개교이자 국내 최초의 연륙교로서, 영도구를 내륙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총연장 214.63m, 폭 18m의 영도다리 건설은 영도의 고립된 지리적 한계를 해소하였고, 영도구를 항만도시 부산의 핵심 산업 공간으로 통합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안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를 위해 영도초등학교, 남항초등학교, 대원아파트 일대가 채토장으로 활용되었으며, 토사 붓기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매축공사와 기반시설 확충은 대평동을 근대 조선공업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대규모 조선소뿐만 아니라 200여 개에 이르는 수리·건조·부품업 영세업체들이 집적되면서, 산업과 주거가 긴밀히 얹힌 독특한 도시조직이 형성되었다.

해방과 6·25전쟁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과 이농민들이 대평동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북동네와 제주골목이 있다. 이북동네는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밀집하면서 판잣집·강통집·천막집 등이 한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은 형태로 조성되었고, 이는 열악하지만 집단적 생활공간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은 공실이 많아졌으나, 과거 리벳작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깡깡이 아지매’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제주 해녀들이 활동 거점으로 삼은 제주골목은 대평로 41번길 주변에 형성되었으며,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주택들이 나란히 이어진 모습이 지금까지도 확인된다.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평동 수리조선거리는 산업적 활력이 극대화되었고, 조선소·수리공장과 노동자 주거지가 밀집된 산업-주거 복합도시조직이 확립되었다. 이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이 ‘깡깡이마을’로 불리며, 한국 근대 수리조선업 발상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다.

2.2 깡깡이마을의 공간구조와 도시조직 특성

깡깡이마을은 수리조선업의 발달과 쇠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거 유형과 건축적 흔적이 중첩되며 독특한 도시조직을 형성하였다.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1950년대 이북동네의 형성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출신 피란민들이 남서쪽 구역에 정착하면서 판자, 강통, 천막으로 지은 열악한 피란민 주택이 들어섰다. 기존에 남아 있던 일본식 주택과 함께 피란민 주택, 무허가 주택 등이 혼재하였고,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 구호주택(장옥 유형)이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 공실 상태이며, 일부는 공장 노동자들의 탈의실이나 창고,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이북동네 입면모습 일부

② 1960년대 제주마을의 확장

원양어업과 수리조선업의 호황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 해녀들이 정착하였다. 대지가 한정적이었던 탓에 주택은 수평 확장보다는 수직 확장을 통해 단층 위에 2층을 증축하거나 옥탑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는 이 구역은 ‘제주골목’으로 불리며, 고밀도의 주거 환경과 비공식적 건축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4 제주마을 입면모습 일부

③ 1970년대 이후 주공복합 건물의 등장

대평동 북동쪽에는 주거와 공업사가 결합된 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1층은 작업장·공업사, 상층부는 주거로 구성되어 직장 생활이 동일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주공복합 건물은 점차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주변에는 다방, 슈퍼, 식당 등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마을의 기능이 다양화되었다.



그림 5 대평동 북동쪽 입면모습 일부

깡깡이 마을에 현존하는 일본식 주택의 벽체는 목재 비늘판벽과 ‘곰보벽’이 대표적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타일과 벽돌을 활용한 주택이 점차 늘어났다. 타일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주로 사용되면서 1970년대 주택건설 붐과 맞물려 마을의 경관을 변화시켰다. 벽돌 주택은 연와조 구조의 특성상 단일 벽면이 많았고, 벽돌공의 미감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드러나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입면 풍경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깡깡이마을의 도시조직은 전쟁 직후 형성된 이북동네의 피란민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제주마을의 급격한 인구 팽창과 수직적 확장, 1970년대 주공복합 건물과 상업시설의 도입, 그리고 일본식·타일·벽돌 주택이 공존하는 입면 변화로 이어지며 다층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하였다. 산업과 주거가 얹히고, 시대별 기억이 층위별로 중첩된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생활 기반의 흔적을 넘어,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림 6 년도별 위치도

2.3 일식주택의 구성 분석

깡깡이마을에 남아 있는 일본식 주택은 일제강점기 조선공업단지 조성 및 함께 도입된 주거 유형으로, 당시 일본인 기술자와 관리자, 어민들의 거주를 위해 건립되었다. 이 주택들은 대평동의 산업적 성격과 식민지 도시구조를 동시에 반영하는 사례로, 오늘날에도 일부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평면 구성은 전통 일본 가옥의 특성을 보여준다. 내부는 다다미방을 중심으로 한 구획으로 이루어졌으며, 마루 공간을 통해 실내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부엌은 건물의 한쪽에 배치되어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의 동선을 구분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평면은 동일 시기 형성된 피란민 주택의 단순한 단칸방 구조와 뚜렷이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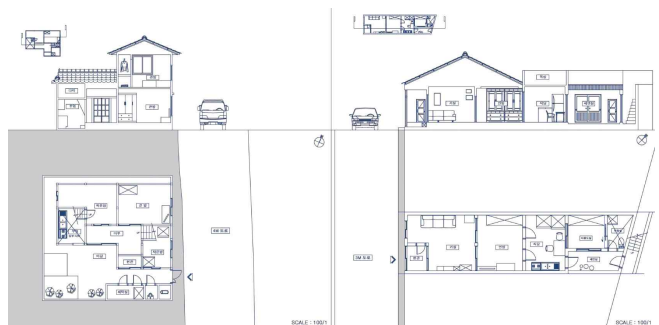


그림 7 대평동 일식주택 단면 및 평면

공간 배치는 주로 중심 가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대지의 협소한 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체계적인 배치와 마당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대평동의 불규칙하고 고밀도의 주거지 속에서 이질적인 공간 질서를 보여준다. 구조적 특징은 목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기와 지붕을 갖춘 경우가 많다. 건물의 규모는 소형이지만 마감과 디테일에서 당시

일본식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에도 내부 개조를 거치면서 여전히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종합하면, 일본식 주택은 평면 배치, 공간 구성, 구조적 특징에서 당대 일본 주거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이후 피란민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용된 다층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는 강강이마을 도시조직 속에서 산업과 주거, 그리고 식민지 경험이 교차한 특수한 건축 유형으로 평가된다.

3. 산업 쇠퇴 이후 변화와 문제점

3.1 조선업 쇠퇴와 도시조직의 파편화

대평동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해 수리조선업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한 때 200여 개에 달했던 중소 수리조선업체와 관련 부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폐업하거나 이전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은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하였고, 남은 주민들 또한 고령화되면서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되었다. 산업 쇠퇴는 곧바로 도시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리조선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주거지와 상업공간은 기능을 잃고 방치되었으며, 많은 가옥들이 공실로 남게 되었다. 골목길과 필지 체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의 밀도와 활력이 사라지면서 공간은 단절과 파편화를 겪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주거·상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도시조직이 분리되고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북동네와 제주마을 등은 인구 감소로 공가율이 높아졌으며, 일부 건물은 임시 창고나 작업장으로 전용되면서 원래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 주공복합 건물 또한 공업사 운영이 중단되면서 기능을 잃고,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던 다방·슈퍼·식당 역시 사라지거나 쇠락하였다. 그 결과, 마을 내부에는 생활과 산업의 흔적만 남은 채 실질적 이용이 단절된 공간들이 다수 분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조직의 파편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해체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공동체적 연계가 끊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산업과 생활이 중첩되며 형성되었던 독특한 도시조직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물리적 흔적만이 잔존하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3.2 인구감소와 생활 기반의 약화

조선업의 쇠퇴와 함께 대평동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수리조선업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밀집하여 활발한 생활환경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젊은 층의 유출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고령층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활기반 전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마을 곳곳에 위치한 다방, 슈퍼마켓, 식당, 공구점 등이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시

설이었으나,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용도가 전환되었다.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시장적 기능도 점차 사라져, 일상적 소비와 교류를 위한 기반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주거지의 공실화와 건물 노후화는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빈집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공가 주변의 환경은 지역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하였다. 주민 공동체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호 돌봄과 생활 협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와 생활기반의 약화는 단순히 물리적 기반의 쇠락을 넘어, 일상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쇠퇴 이후 대평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시적 과제 중 하나이며, 향후 도시재생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이른바 ‘강강이마을’을 대상으로 수리조선업 발상지의 도시조직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평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택의 도입과 매축공사를 통한 산업 기반 조성에서 출발하여,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 주거지의 형성, 1960년대 제주마을의 인구 팽창과 수직적 확장, 1970년대 주공복합 건물의 등장 등 다양한 주거 유형과 도시조직이 시기별로 중첩되며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선업의 쇠퇴는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공업사의 몰락을 불러왔고, 이는 도시조직의 파편화와 생활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산업·주거·상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마을 구조는 해체되었으며, 현재는 공가와 노후화된 주거지가 다수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쇠퇴를 넘어 공동체의 축소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산업 쇠퇴 이후 수변 지역이 직면하는 도시적 과제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강강이마을의 사례는 산업과 주거가 혼재한 도시조직의 역사적 가치, 다양한 주거 유형이 층위별로 중첩된 공간의 독특성,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가 도시재생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보여준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고령화와 공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조성 등이 병행될 때, 강강이마을은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2010
2. 강강이에술마을추진위원회, 강강이에술마을 성과보고서, 2020
3. 강상현, 지역산업의 탈산업에 따른 도시 변화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21